

##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직속 총괄특보단 정무특보 출범

- 정무특보단장에 문학진 전 의원... 국민의정부·참여정부 정치원로들 결집 -

-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장(안민석, 정성호, 김교홍, 김철민)은 4일 여의도 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‘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정무특보단 출범식’을 개최했다.
- 이재명 후보 직속 정무특보단은 광역본부장 체제로 전국을 아우르는 조직으로,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단장을 맡았다. 권노갑·정대철·박명광·염동연·이강철이 철·장영달·배기산·최종원 등 민주정부 시절 정치원로들이 상임고문단으로 위촉됐다.
- 정대철 상임고문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, “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것을 알아봐주시는 반전의 신호”라며 “대내외적으로 직면해 있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선투표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진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- 이재명 후보는 “정무특보단의 출범은 선거승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”이라며 “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현장에 기초한 정책을 실행해가며 대한민국 대선투표의 초석을 만들어가자”고 격려했다.
- 문학진 단장은 “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흔들어놓기 전부터 우리 앞에는 현 세대를 넘어 후대의 삶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다”라며 “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대한민국 대선투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과 깨어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- 문학진 단장은 17~18대 민주당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했고,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이재명 경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. (끝)

[첨부] 현장 사진

